

미래 문화애호가를 키우자

어릴적 감동이 평생간다

하 체험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지난 15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파랑새' 공연이 열렸다. 이 무대는 대구시가 주최한 '제 1회 대구뮤지컬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이번 행사가 여느 뮤지컬과 달랐던 건 본 작품이 공연 되기 전 조명과 무대 등을 활용, 뮤지컬에 대해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하고 춤 추는 코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연을 관람한 손다영(12·대구 용지초 5년)양은 "조명의 색깔이 바뀌는 게 신기하고 뮤지컬은 신나는 노래가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첫 행사였던 탓에 부족한 점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대구뮤지컬 페스티벌'을 에дин버러 축제를 넘어서는 '세계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는 애심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기획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다 크다.

직접 참여하며 배워가는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문화와 친구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백화점

문화센터를 제외하면 변변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음에도 이를 특화시킨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준다.

올해 13년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다. 디자인비

역시 빙약하다. 대구시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수성아트피아는 지난 5월 개관하면서 아예 어린이들을 위한 '아트피아 아트 키즈'를 개설했다.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강좌지만 한국문화예원위원회의 미술 프로그램인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뮤지엄교육연구소의 '일요일에 가는 미술관·박물관' 등 수준높은 프로그램이 포진해 있다.

경남 김해시가 운영하는 김해 문

성미술관 리움 등을 벤치마킹,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지역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아시아문화전당 흥보관이 방학 때 진행하고 있는 '민족 애니메이션 문화중심도시에 빠지다' 정도다.

최근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지만 마땅한 체험프로그램이 없어 고심하던 전당측은 8월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미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구성중이다.

일선 초등학교 등과 연계, '비취달린 학교'를 운영 중인 광주북구문화의 집은 말바우 시장 프로젝트와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자체 프로그램으로 광주·장성 등을 직접 답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중이다.

대구 수성아트피아 이정아 팀장은 "창의성과 직결되는 문화예술 교육은 직접 체험해보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어릴 때부터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는 것도 자연스러워 문화 향유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아예 없어 '어린이 미술탐험' '리움 키즈' 등을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

어린이 체험 공간, 백화점 문화센터가 고작

비엔날레 등 상설 행사 체험프로그램 절실

엔날레와 임방울국악제, 광주공연예술축제 등도 마찬가지.

비엔날레의 경우 행사 때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단체 관람이 밀려들지만 학생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작품을 끊고 지나가면 그뿐이다. 도슨트 제도 등을 활용, 학교와 전시관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지역 공공기관의 체험 프로그램

화의 전당의 '아람 배움터', 서울시 종로청이 운영하는 충무아트홀의 '어린이 예술아카데미' 역시 미술·음악·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문화회관은 발레교실과 어린이 학장교실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아예 없어 '어린이 미술탐험' '리움 키즈' 등을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

화의 전당의 '아람 배움터', 서울시 종로청이 운영하는 충무아트홀의 '어린이 예술아카데미' 역시 미술·음악·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문화회관은 발레교실과 어린이 학장교실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아예 없어 '어린이 미술탐험' '리움 키즈' 등을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래스팅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2008년 국비지원요청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갖고 있다.

(광주시제공)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등

광주시, 1조5천억원 국비 요청

광주시가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빛고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비 55억원 등 신규사업비 1천100억원을 비롯해 총 111건에 1조5천3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부지면적 3만3천㎡에 연면적 4만㎡로 자료보존관과 비슷한 면적, 소공연장, 전시실, 지역특화 자료실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1천300억원이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朴시장 “구간 경계조정 민간조 만들겠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25일 광주시내 구간 경계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민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선출직(공직자)'들이 협조하면 잘 된다"고 말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협조해해 한다"며 "시장이 하면 협조해해 하니까 민간위원회 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선출직도 설득해야 한다"며 "불균형은 해소해야 하고 분할 조정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석한 송광운 북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북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사업으로) 노인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0만 평 규모의 복합단지 조성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 곳에는 노인병원, 노인질환연구센터, 요양시설 등을 배치해 북부노인복지타운·노니동 노인건강타운과 별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북구에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황해권 시·도지사협’

4년만에 다시 열려

2003년 발족 직후 중단됐던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가 4년만에 다시 열렸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도청에서 전남·경기·인천·충남·전북 등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5개 시·도지사들은 합의문을 통해 ▲서해철도 조기 건설 ▲국도77호선(인천~부산) 미개통 구간 조기 완공 ▲해양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시·도 연구원 공동포럼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5개 시·도지사들은 이를 위해 불법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사건 피해자가

“불법시위 民訴 없이도 손배 부과”

법무부 관련법 개정 추진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 시위자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 대상에 접속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은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곧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불법시위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형사재판으로도 불법시위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 시위자에 피해자와 피해액, 공동 행위자 등 배상명령을 포함한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와 사실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은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곧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7월 8일(일)

▲심각신악회 결경 낙해군 금산보리암신행(상주해수온장경유, 점심식공) 7월 8일(일) 07시 염주사거리(양동시장, 광주역 경유) 08시 88테나스장 앞 출발 T.017-601-7633

7월 14일(일)

▲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강원도 평창 오대산 노인봉 7월 14일(일) 05시 문예회관후문 출발 * 다음카페:광주산사랑도요산악회 T.010-7171-2682

▲평생신악회 완도 보길도 적자봉(예수리 해수욕장경유) 7월 14일(일) 07시 조내봉에 앞 출발 T.011-625-4222

8월 3일(금)

▲광주토요산악회 쟁북 백두산(3박4일) 8월 3일(금) 13시 광주공항집결 ※ 예약마감: 6월 30일(금) http://cafe.daum.net/gwangjuoyotour T.011-608-4267, 011-634-2044

▲요산회 페리온 아포산, 파가이마이 트레킹 8월 3일(금)~8월 8일(수) T.016-611-1509

9월 7일(금)

▲한울산악회 백두산 9월 7일(금)~9월 10일(월) 3박4일 ※ 7월 22일까지 선착순마감 T.011-645-3371

▲광주한길산악회 정기행 7월 7일(일)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0일(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1일(수)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2일(목)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3일(금)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4일(토)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5일(일)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6일(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7일(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8일(수)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9일(목)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0일(금)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1일(토)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2일(일)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3일(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4일(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5일(수)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6일(목)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7일(금)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8일(토)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9일(일)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30일(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31일(수)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1일(목)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2일(금)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3일(토)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4일(일)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5일(화)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6일(수)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 7일(목) 07시 30분 광주역 경유

7월